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668

2009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아이스너의 교육관이 중등 미술교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승 선

아이스너의 교육관이 중등 미술교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Eisner's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on the Secondary Art Education Curriculum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승 선

아이스너의 교육관이 중등 미술교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익 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승 선

박 승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영문초록

Ⅰ. 서 론 1

A.연구목적 및 필요성.....1

B. 연구방법 3

Ⅱ.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 4

A. 아이스너 미술교육에 대한 사상적 배경.....4

B.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방법론.....8

1.미술교육에 대한 관점 8

2. 교육 과정 16

Ⅲ. 한국 미술교육의 현황과 아이스너의 영향.....28

A. 한국 미술교육 과정의 전개 28

B.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의 현황 42

C. 한국 미술 교육에 미친 아이스너의 영향.....43

1. 아이스너 미술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술 교육.....44

2. 아이스너 미술교육사상을 통한 중등 수업.....46

3. 아이스너 미술 교육사상의 문제점과 대안.....47

Ⅳ. 결 론 50

참고문헌.....52

표 목 차

(표 1) 미술학습의 영역 17

(표2) 스탠포드 케터링 교육과정에서 활용된 교육과정의 구조....20

(표 3) 아이스너의 DBAE구조의 지식구조.....23

(표 4) 미술과 목표 체계 표 37

(표 5) 7차 교육 과정의 미술과 내용 체계표.....40

국문 초록

사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은 사회의요구를 반영한다. 미술교육도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미술교육 전반에 반영되는 교육사상 및 방법론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교육 방법을 답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변화가 요구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술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학자인 아이스너의 미술 교육관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자료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술교육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 과정에 제1차, 제2차 교육과정은 창의성중심 미술교육에 중점을 두었지만, 창의성 중심교육 과정의 인식부족과 실질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 미술을 하나의 기술로 인식하는 편견 등으로 인해 실기 중심으로 그 흐름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런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과정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차 교육과정에서 학문중심 미술교육 과정이 도입하게 된다. 그러다가 제6차 , 제7차 개정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학문 중심 교육사상이 우리나라 중등 미술 교육과정뿐 아니라 교육 하는 현장에도 반영 된다.

학문 중심의 미술교육사상을 대표하는 아이스너는 DBAE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한 동시에 미술 교과를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보았고, 미술수업에서 작업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으로 학생의 학습을 추론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는 결과를 중요시 여겼다. 아이스너는 미술교육에 미술이해 및 감상교육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술교육 학문으로써 감상하고 이해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아이스너의 미술 교육사상은 학문 중심 미술교육과 같이 미술에 대한 지식전달에 중점을 둔

나머지 미술수업이 암기식 수업 또는 단순한 지식 전달 수업의 형태가 될 우려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지도 방법의 제시가 미흡해서 교사에게 너무 과중한 요구가 주어 졌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스너의 중등 미술교육 사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야할 내용이다.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Eisner's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on the Secondary Art Education Curriculum

Seung Sun, Park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Society keeps changing with the era and education reflects the needs of the times.

As art education reflects the requests of the society changing constantly, conceptions and methodology that affect the art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examined.

Generally, following an old teaching method is to put back the clock. Once a change is needed, We should try to establish a new model of the art education method.

This report intends to suggest a proper direction for Korean art curriculum by recognizing how Eisner's attitude toward art education has affected Korean secondary art curriculum and examining data that is relevant.

The first and second education curriculum attached great 9importance to creativity for Korean art education, which led to emphasizing practical skills and expression. Failing to understand what creativity is, considering art as technique, and focusing on 'Go for university' education also contributed to the situation. To make up for this trouble,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DBAE) was introduced to the third education curriculum. It was not until the sixth,

the seventh, and the seventh revised one that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was reflected in not only the secondary art curriculum but also the field of schooling.

Eisner, theproposer of DBAE, considered art education as anindependent subject. Because it could be a barometer to infer what kind of education students had got, he thought the outcome more important than the process. He has paved the way of a concern with connoissership-the art of appreciation- and criticism and mediated these for educators.

DBAE, however, literally focused on the discipline, it was worried that art education could be partial to just delivering knowledge.It was also a burden for new and untrained teachers who lacked the teaching method of specific curriculum. This is the weak point of Eisner's which should be fixed.

There have to be consistent efforts to adapt this methodology properly under Korean secondary education circumstances. And by examining logically and scientifically, programs for art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constantly with the era.

I. 서 론

A.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미술교육 역시 이런 변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라는 시대적인 사회요구를 반영해야한다. 미술교육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비록 시간상은 짧지만, 요목기과정(1945-1954)에서부터 현재 제7차 개정교육(2007.2.29)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제2차 교육과정(1963~1973)부터 제5차 교육까지의 미술교육은 창의적인 자기표현과 자연적인 성장을 의도한 교육과정이었다면, 1990년대부터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미술교육의 학습구조나 학습영역에 대한 아이스너의 사상을 많이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미술의 교육은 국내의 자체적인 미술사상의 발전이 미비한 가운데 외국의 미술교육에 대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였기 때문에 한국교육 사항에 맞는 미술교육의 사상적 바탕을 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교육 이론의 발전, 사회적 여건의 변화,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이 내·외적인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가지 방안의 미술교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변화 되면서 뚜렷한 이론적 바탕이 없는 실험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험연구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통계처리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의 작용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원리 접근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실험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미술교육의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문제인식을 두고서 우리 미술교육 과정에 흐

르는 아이스너의 미술 교육사상 및 방법론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미술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 아이스너를 선정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90년대 이후에는 아이스너의 교육사상이 우리 미술교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아이스너의 사상은 실제 교육과정이나 목표에 반영되었으며 실제 수업에서도 많은 미술교사들이 아이스너의 교육 지도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아이스너의 사상이 우리 미술교육과정 및 미술지도 까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너의 교육사상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미비 한 것 같다고 본다. 아이스너 미술사상의 영역적 측면에서 미술의 이해와 미술평가에 대한 교육을 주장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DBAE 교육운동의 바탕이 되어 오늘날 미술교육에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이스너의 교육 사상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검토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비판적 사고로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실정에 맞게 받아 드려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미술교육의 관한 연구가 요청되어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 사상에 대한 지대적인 영향을 미친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사상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리 미술교육 방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하며 교육의 지적된 문제의식과 평가의 필요성의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을 하였다. 첫 번째, 아이스너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검토해 본다. 두 번째, 학문중심의 미술교육의 대표적인 학자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 및 방법론을 고찰해본다. 셋째,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검토하며 중등 미술교육의 현황을 파악 해보았다. 넷째,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사상 방법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에 맞는 미술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B.연구방법

본 논문은 아이스너의 교육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교육의 흐름을 제 1차 교육과정에서 제 7차 계정교육과정까지의 지도목표를 살펴본 다음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의 사상적 특징과 방법론적 견해를 분석해 보려한다. 이때 아이스너의 교육사상에 대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우리 미술교육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의 대해 연구 하려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미술교육 방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연구 초점을 두면서 현재 추진 중인 DBAE 접근도 본 연구에 포함시키려 한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미술교육)(아이스너의 방법론)(미술과 교육과정 해석 등) 서적을 국내외적의 단행본, 학술지, 논문 등을 분석 정리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여 기술하려한다.

Ⅱ.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

교육이 원만한 인간형성을 바라는 뜻이라면 미술교육 역시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 이어야 한다. 미술교육이란 인간의 감성을 통하여 인간영혼과 정신을 미술 교육으로써 조형화하고 이미지와 감동을 통해 감성적 인식이 수반되는 교육이므로 의식세계에서 가장 깊이 작용하는 교육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술교육이 인간의 인성 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미적 이미지가 내면화 될수록 인간의 내적 세계에 대한 감성이 깊어지고, 정서를 세련시키며, 인간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 이를 바탕으로 미술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을 양성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한 개성적 창조성을 발휘시켜 바람직한 인간성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인간성 교육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윤택하고 풍족하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넓혀 나가도록 하는데 미술교육의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2]

A. 아이스너 미술교육에 대한 사상적 배경

시카고 서부 출생으로 시카고 종합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로서 미술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였으며 미국 미술교육협회(NAEA)와 국제 미술교육학회(INSEA)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미술교육의 발전에 큰 공헌[3]을 한 아이스너(Eillot W. Eisner,1933~)는 당시 미술교육의 커다란 이슈였던 창의성중심 미

1) 안영옥, “예술은 인간의 감정의 상징하는 형식”(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p.11.
2) 김상량, “미술교육개론‘ (서울 미진사. 2000). pp.13-16 .
3) 박동수, “현대 미술 교육의 경향과 제반 문제”(미술교육연구 논총.1998). p.9.

술교육의 문제점들을 비판하였다.

창의성중심 미술교육은 이 사조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미국의 로웬펠드 의해 자기표현을 통한 창의성 계발과 미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전제에서 미술교육의 목적이 다른 학문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이스너는 그의 저서“Educating Artisic Vision”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을 이용하는 미술 프로그램은 미술경험을 약화시키며, 어떤 의미에서는 미술교육만이 제공할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학생들로부터 빼앗는다는 것이다.”[4]이런 아이스너의 주장은 다음에서 더 확고하게 나타났다.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업적에 의미 있게 접근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미술은 아마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다. 미술작품을 만드는 가운데 함양되는 정신적 기술들이 아동과 성인이 학교밖에서 당면하는 문제들과 관련이 없다면, 미술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인류의 풍성한 문화를 알게 하거나 혹은 감수성, 상상력, 판단력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것이다.

학교에서는‘기본적인 것’(3R's-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들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아동의 교육적 발달에 있어‘기본적인 것’에 대한 매우 협소한 견해를 갖고 있다. 미술은 사고의 형식과 표현 양식을 제공해준다.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5] 아이스너는 미술 교과가 주지주의(主知主義)교과 만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육에서 미술이 전인 교육에 필요하긴 하지만 필수 교과가 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사회인식에 반대 하였다.

---

4) 김정희, “아이스너의 Educating Artistic Vision” (학문출판 . 2001).p.7.
5) E. W .Eisner,,“ The Role of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America's Schools(Los Angeles: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1987).p.2.

이런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은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방법을 학문에 기초한 미술 학습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과 방법론을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본질주의 교육철학과 학문중심 교육과정, 지각발달이론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본질주의는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의 원인을 진보주의 교육에서 찾으려 했다. 그래서 진보주의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에 시작된 교육 운동이 본질주의이다. 1938년에 "미국 교육의 향상을 위한 본질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1950년 '기초 교육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특히 1957년 소련의 스프트니크 인공위성이 발사가 성공하면서 미국은 자국의 과학 기술이 뒤떨어지게 된 원인을 교육에서 찾게 되었고 미국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본질주의 운동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본질주의의 목적은 정신적, 도덕적 전통과 문화유산 속에 깃들어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골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에 있으며, 문화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핵심 또는 본질을 골라 교과로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과서의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중심으로 미리 계획되고 조직하여 논리적으로 구성된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흥미는 학생들에게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흥미가 아니고 엄격한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흥미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흥미보다 노력을 더 중시하였다. 본질주의 교육철학 내에서 교육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통제되고 주도되어야하며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본질주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바탕을 이룬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학자인 브루너[6]는 각 학문에 기본적인 것, 즉 개념을 익히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기본

6) 부루너(Jerome Bruner1915~): 미국에서 태어났다. 미국의 심리학자 · 교육학자. 아동의 지각 · 학습 · 기억 대한 연구로 미국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하버드대학 교수 임.

적인 것을'지식의 구조'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미술교육 학자들에게 미술을 하나의 문화적 자원으로 보도록 영향을 주었다. 아이스너와 같은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미술 속에 인류 문화의 핵심적 경험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스너는 미술학습의 원리를 끌어내고 미술학습의 영역을 확장 시켰다.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은 미술의 이해와 교육과정,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미술 문화의 이해와 비평능력을 강조하였다. 그의 교육 사상은 본질주의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역사적 배경으로 미술을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보았다. 이 견해에서 아이스너는 죤 듀이(John Dewey)[7]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술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또 의미의 수준에서 회복할 수 있고,요구, 감각, 충동과 인간의 독특한 활동을 결합할 수 있는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증거이다. 의식의 개입은 규제와 선택의 힘과 재구성의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이 의식은 끝없는 방법으로 예술을 다양화한다." 그러나 그 의식의 개입은 또한 예술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이며 의식적인 사상이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했다. 아이스너의 이론은 지각발달 이론과 관련되어있다. 이 이론은 어린이들이 사물을 자신들이 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그림은 그들이 시각적 세계를 지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묘사함으로 그들의 작품에서 어린이들이 지각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시각적인 세부에 대한 식별력을 좀 더 세련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는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의 지각적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루돌프 아른 하임(Rudolf Aruheim)[8]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지각 발달에 관한 게슈탈트 이론은 사람들이 성숙함에 따라

---

7) 존듀이(John Dewey1859-1952);듀이는 미국 태어났다. 실용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요, 철학자이며, 교육자인 듀이는 컬럼비아 대학에 개설하였고,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도서 십진분류법을 창시하였다.

8)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1904-2007),독일 출생 독일 미술비평가·예술심리학자. 나치체제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함. 하버드대학 및 미시간대학에 재직함.

외부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특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증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른은 아동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한 특질들과 그들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질들을 지각하고 비교하고 대조 할 수 있는 과정을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지각 분화(perceptual differentiation)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아이스너도 학생들의 미술표현이 지각의 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지각의 분화에 비례하여 미술표현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그 예를 들어 잔디밭이 단순히 녹색이 아니라 다양한 녹색들이 섞여 있음을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녹색의 미묘한 차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태의 지각에서 건물을 실제 길이보다 높게 보는 것처럼, 결국 관계를 지각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학습에 의해서 발달되고 그들이 경험한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9)이를 통해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은 지각발달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방법론

1.미술교육에 대한 관점

아이스너는 미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공헌을 중시하였으며, 미술의 독특한 영역을 다른 교과에 부수적인 입장이 아닌 교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려고 애썼으며 미술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과 환상적인 것을 가시화함으로써 인간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인간의 감수성을 생생하게 하는 수단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이스너는 미술교육이 우리 인간간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subject matter)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9) 김정희, “아이스너의 Educating Artistic Vision”(학문출판 . 2001).p.66-69.

그러므로 미술은 인간의 환상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감수성을 활기 있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상호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인 자원이라 하였다.

아이스너에 따르면 미술연구도 다른 분야의 연구와 접근방법이 유사하다고 한다. 미술은 중요한 문화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미술연구는 문화 전달 가치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10]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시제도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정 및 지역 사회에서 미술과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 주지 주의적 교육의 풍토 등 때문에 미술이 부수적인 교과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아이너스는 미술의 독자적인 공헌을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미술교과를 다른 학문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였다.

미술교육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그것은 맥락주의 관점과 본질주의 관점인데, 아이스너는 본질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스너의 입장에서 볼 때 미술교육의 목적은 다른 학문에 부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다른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되어서도 안 된다. 미술교육의 중요한 공헌은 미술의 본질에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술교육의 목적은 미술 고유의 독자성과 가치에 두어야하며 하나의 문화적 자원이라 하였다.

학교는 중등학생들이 중요한 문화적 자원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 미술은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원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문화와 지구상의 모든 문화에서 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류가 조형미를 탐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미술은 인류가 다른 표상식[11]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거나 표상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이스너는 미술수업의 세 가지 측면을 제작 영역, 비평 영역, 문화적 영역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미술교육의 영역을 미술

10) 최윤재, “아이스너(E.W.Eisner)의 미술교육 방법론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제 1집 .1993). p.127.
11) E. W. Eisner ,“표상형식”(Cognition and Curriculum1978),p.136.

제작, 미술비평, 미술사와 문화로 나눴다. 그는 미술학습이란 중등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작품의 미적 요소와 특징 등을 이야기하고, 작품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는 실기능력뿐만 아니라 미술비평과 미술사.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술제작의 영역에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 중 중요 요소 네 가지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재료를 다룰 수 있는 기능
2. 작품 자체가 제공하는 형태와 환경의 범위에서 볼 수 있는 형태, 정신적 이미지로 보는 형태들 사이의 질적 관계를 지각하는 기능
3. 작업하고 있는 재료의 한계 안에서 제작자를 만족시키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능
4. 공간적 질서와 미적 질서, 표현 질서를 창조하는 기능[12] 등이다 미술가는 자신의 이미지, 생각, 느낌을 재료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킨다. 이때 재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든지 그것은 최종적 작품에 기여한다는 것이며, 둘째, 재료 그 자체에 시각적, 촉각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스너는 학생 자신의 이미지나 느낌을 재료의 범위 안에서 형태로 변형 시킬 때, 재료는 매체가 된다고 보았으며, 학생들이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 때 재료를 다루는 기능과 더불어 대상을 지각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미적표현을 위해 매체나 대행 물로서 재료를 다루는 능력은 표현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그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술 표현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재료를 다루는 능력을 요구할 뿐만 아

12) “ibid., p.80."

니라, 그 재료가 미술가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의 시각적 감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데 쓰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아이스너는 재료 다루기와 형태 지각하기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지각적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학습과 경험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스너는 학생의 적성과 취향,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징 등이 모두 포함되어 교육과정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13] 말하자면, 아이스너는 교육과정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교육과정을 한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직된 체계적인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활동'이란 교육과정 학생들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활동, 즉 회화, 토론수업, 독서, 분석, 어떤 주제나 생각의 탐색 등에 참여하도록 함을 의미한다.[14] 따라서, 아이스너가 말하는 교육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에 참여하여 교육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고안된 하나의 체계적인 활동인 것이다. 아이스너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1. 학교는 어떠한 교육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2. 그러한 교육 목적 성취를 위하여 어떠한 교육경험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그러한 교육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 할 수 있을까?

4. 교육경험을 어떻게 평가 할 수 있는가?

---

13) E. W .Eisner,“ The Role of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America's Schools(Los Angeles: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1987) .p.26.
14) "ibid., p.153."

아이스너는 여기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행동유형들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수업목표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업목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교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수업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구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로 미술교육에 사용되어지는 수업목표들은 "미술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미술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의미 있는 미술 경험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자라도록 돕는것"[15]과 같이 그 의미가 모호하였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수업목표가 요구되었다. 미술에서 여러 목표들의 대부분이 학생의 행동용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술작품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이해와 통찰력의 유형이 대부분 직접 관찰이 가능하거나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현상을 추론적인 언어로 적절하고 정확하게 서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 목표는 열정적이기보다는 신중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달성하려고 의도하는 활동에 활용될 때 수업의 효과는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처럼 미술에서도 명확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사는 미술 수업에서 희망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고정되거나 예상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자료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상상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학생의 노력에 관한 판단은 노력이 발휘된 후에 광범위한 준거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올바른 답을 구하는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미술형태를 창조함에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없다.

아이스너는 이러한 유형의 행동들을 허용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표현목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표현목표는 학생이 나타내거나 만들어 낸 행동이나 결과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이 작업에서 직면하게 될 어떤 마주침(encoynter)을 기술하는 것이며 곧 그 마주침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5) "ibid., p.154."

16)교사가 발견하고 평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이다. 학생이 무엇인가를 학습한다거나 경험하는 것,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작업할 기회를 가진 다음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 목표의 개념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다양한 유형의 결과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목표는 학생의 행동유형을 설명하는 것인데 만일 그런 유형이 나타나야 한다면 그것이 신뢰성 있게 조직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이 자신들의 생각을 상상력을 가지고 활용하기를 바랄 때, 또는 학생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형태를 독특하게 구성하기를 원하는 수업에서는 표현목표가 적절하다.

미술교육과정은 실기와 이론사이를 오가며 리듬감을 가질 수 있다. 이론적인 면은 학생들에게 표현을 하게 하는 여러 기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지만, 실기적인 면은 어린이들이 이론적인 면에서 획득한 여러 기능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생각, 이미지 및 감정을 탐색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부자연스럽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특성을 가진 수업목표가 설정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맹목적 강조의 실기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맹목적이고 딱딱한 수업 때문에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미술 교육은 기계적이고 의욕적이지 못한 활동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미술 교육과정에 있어 자유로운 표현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연습은 미술표현에 있어 감각의 숙달과 같다. 교수에 있어 이러한 숙달이 필요하다면 교사는 교수를 통하여 학생에게 그러한 표현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는 학생이 앞으로 자신의 상상력이나 생각, 이미지, 감정 등을 표현하는데 있어 밑바탕을 이루게 된다.

아이스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활용은 교육과정 계획시에 계속성

16) “ibid., p.156."

(continyity)과 계열성(sequence)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내면화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연마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계속된 기회를 필요로 한다. 누구나 처음부터 내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는 일련의 기간이 필요로 하게 된다. 학생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로 갑자기 옮겨 갔을 때 각각의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이 새로운 재료나 프로젝트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자극을 받아 피상적인 방법으로 재료나 프로젝트를 탐색할 수는 있지만, 다루어 본 경험이 짧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 대해 기술적인 내면표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이스너는 계속성(continyity)이 부족하면 표현매체로서 재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능의 발달과 세련적인 표현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아이스너는 미술 교육과정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작업해야 하는 독립적인 활동의 집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에서 하나의 교육과정은 기능이 발달되고 세련되고 내면화되어 일종의 표현적인 연속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성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신기로움에 유혹당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과업이 학생들에게 작용하는 요구를 분석하고 다음 과업의 선정에 그러한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둘째, 각 미술활동 사이의 간격은 프로젝트의 흥미가 손상되지 않을 만큼 짧을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사이의 시간이 길면 이전의 작업과정에서 얻은 통찰력과 기능을 더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계속성이란 학생이 각각의 활동에서 이전의 활동에서 획득한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활동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속성은 기능을 훈련시키고, 세련되게 하는 기회를 말

한다. 그리고 아이스너는 적당한 양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미술에서의 능력 및 감수성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며, 시간의 계속성이 가능하더라도 프로젝트 안에서의 계열성(sequence)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계열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는 교육과정 활동의 조직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색이 제한된 팔레트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점차 색깔의 범위를 넓혀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계열적 활동은 의도적으로 계열화되면 이전에 획득된 기능을 토대로 조직된다.[17]앞에서 본 이 두 유형의 활동과 목표들은 리듬감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제공된 활동의 계속성에 비추어 선정되어 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전 단계에서 획득한 기능을 사용하도록 허용되며, 또한 그런 활동들은 계열성의 관점에서 선정된다. 계열적인 활동은 보다 복잡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그래서 획득된 기능들은 더욱 발전하고 세련되어 지게 된다.

아이스너는“교육과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생, 교사, 또는 교육과정 위원장 등 누구에 의해서 계획되었든 학습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학습하고 경험하도록 고안된다. 교육과정이 학습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학습활동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18] 이러한 경향은 많은 가능성 중에서 제안된 것일 뿐이다. 교사와 사용된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을 계획함에 있어서 열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점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17) "ibid., pp.166-167."
20) "ibid., p.168."

2.교육 과정

교육과정에서 학습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계획된 활동에 대한 교육적인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의 활동 이전부터 경험해 온 활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앞으로 행하여질 활동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감각과 학생들이 가진 기능의 수준과 관련하여 활동 속에 깔려 있는 복잡성의 수준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선정하느냐,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관심에 근거한 활동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중요성의 여부와 학교 안에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삶이 밀접한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활동이 학교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술학습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기능을 발달시키고 숙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내용의 주장은 아이스너의 어떤 프로그램을 조직할 때에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a. 스탠포드 케터링 교육과정(Stanford's Kettering Project)

스탠포드 케터링 교육과정(Stanford's Kettering Project)라고 이름 붙인 이 미술교육프로그램은 1969년 찰스 케터링 재단(Charles F. Kettering Foundation)의 후원에 의해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bersity)에서 개발된 미술교육과정 프로그램이다.

아이스너가 주축으로 미술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미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어 제작된 시청각 매체를 쉽게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아이스너가 주관한 케터링 교육과정은 미술교육 방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

였다. 그것은 기존의 표현 학습을 보완하는 미술이해 교육과 미술 감상 교육을 강화하는 미술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근본 전제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근간으로 하여 단원과 영역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미술교육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그 프로젝트의 특징은 미술실기 외 미술 비평 및 미술 문화와 역사를 교육과정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표 1) 미술학습의 영역

이 프로젝트가 미술교육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근거는 그 전제에서도 확인된다. 첫 번째 전제는 미술학습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런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 신념 하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기능과 감수성, 시각 형태에 반응하는 능력, 인간의 문화적 경험 속에서 미술이 수행하는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등이다.

두 번째 전제는 미술이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미술만 제공하는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미술을 가르치는데 있어 교육과정이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학습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이건 비형식

적이건 평가는 교수 학습의 성취도를 알 수 있는 근거이다

이 학습의 기본적인 전제는 미술 학습을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에 의해 습득되는 결과로 보는 것이다. 다음은 케터링 교육과정의 구조를 구성하는 범주이다.

1. 영역
2. 개념 또는 표현 양식
3. 원리 또는 매체
4. 이론적 근거
5. 목표: a.수업목표 /b.표현목표
6. 동기부여활동
7. 학습 활동
8. 수업 보조매체
9. 평가 절차

제작 영역, 비평 영역, 역사 영역이라는 세 가지 미술학습의 범위가 교육과정 안에 설정되었고, 이미 검토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영역은 교육과정 자료와 학습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된 영역이다. 제작 영역에서는 개념이 아니라 표현 양식을 검토하였고 원리가 아니라 재료를 검토하였다. 비평 및 역사 영역에서‘개념’은 제작 영역에서‘표현양식’과 같으며‘원리’는 제작영역에서‘재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케터링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교사는 사용할 개념이나 표현 양식과 중점을 두어야 할 원리나 재료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작업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연구진은 교사가 왜 학습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지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과정 지침서에서 이론적 근거를 각 단원에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과 미술학습의 개발을 위해서 그 이론적 근거에는 아이디어나 기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되어져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수업에 활용될 재료가 이해 없이 제공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시각예술에 관한 교양과 이해, 감수성을 점차 향상시키기를 희망하였다. 즉, 이는 제공되는 자료가 학

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미술교육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론적 근거 다음에는 수업목표나 표현목표가 편성되었다. 수업목표는 각 단원을 마친 후에 중등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학습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표현목표에는 이전에 획득한 기능을 개인적인 표현 방법 안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수업목표와 표현목표 사이를 넘나 들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 다음에는 제안된 동기부여 활동이 뒤따른다. 이 활동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하나의 교사에 대한 제안이다. 동기부여 활동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학생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미술의 관점에 관하여 생각하도록 하거나,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발달시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미술시각의 탐색을 하도록 짜여 있다.

제안된 동기부여 활동 다음에는 교사에게 모두 그 단원의 목표에 관련된 두세 가지 학습 활동이 제공 되었다. 왜냐하면 특정한 학생이나 자기의 학급에 가장 잘 맞는 활동 유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케터링 교육과정에서 각 단원의 목표를 제공하는 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연구진들은 교사들이 케터링 교육과정을 활용해 시각예술에서 유능한 교사가 되어 자신의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에서 시각 보조매체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미술 수업 자료에 대해 생각할 때 미술 재료는 물감, 종이, 크레용, 가위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은 미술준비물이 아니라 환등기, 슬라이드, 특별히 준비된 드로잉, 색상환, 작품사진, 그리고 교육과정 자료 안에서 단원 및 제재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여러 유형의 시각자료들이다. [19]약 700여 종에 달하는 이

자료들은 상자에 담겨졌고 각각의 자료는 각 제재의 수업에서 참조 할 수 있도록 숫자로 코드화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시각적 현상을 지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자료들은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제재와 단원의 핵심이 된다.

결국 대부분의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제공된 자료의 효과성을 교사가 평가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평가 절차가 제안되었다.

(표 2) 스탠포드 케터링 교육과정에서 활용된 교육과정의 구조

개념 또는 표현양식

▼

원리 또는 표현매체

▼

이론적 근거

▼

목표

▼

동기활동 부여

▼

학습활동

▼

수업보조매체

▼

평가절차

19) "ibid., p.201."

케터링 교육과정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술학습의 세 가지영역에서계열적으로 조직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교육 분야에서의 선구적인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다.

b.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1960년대 이전의 미술교육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미술의 아카데미 전통에 의한 미술가 교육과 산업혁명으로 필요해진 디자이너 양성을 위하여 미술표현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표현 기능 미술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듀이등의 아동중심 미술교육의 영향으로 형성된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다. 특히 1940년대 이후 미술교육은 로웬펠드의한 어린이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강조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어린이에 중점을 두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나 창의성 계발을 중시하는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1957년에 소련에서 스프트니크 인공위성발사에 성공 이후 교육계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은 미술교육계에서 까지 밀려들었으며, 그 때부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구조화된 학문 지향적 미술교육 접근에 대한 장점이 토론된 이후로 창의적 자기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술교육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DBAE라는 용어를 처음 끌어낸 학자는 그리어(W. D. Greer)이며,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모델을 제공 한 학자는 아이스너이다. 즉 DBAE는 아이스너와 그리어 등의 미술교육 사상을 주축으로 미국의 게티센터(The Getty for Education in the Arts)가 1982년부터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 미술교육운동인 것이다. 아이스너의 DBAE는 미술을 하

나의 학문으로, 문화유산으로 보았다. 미술을 이해시키고 미술문화를 통한 학문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미술교과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미술은 우리 문화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미술은 학교의 교육과정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교과라고 하였다. 둘째,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미술교육은 창의성 중심미술교육이 표현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시했다. 이들은 인간 경험과 이해, 미술의 본질적 가치를 다룰 때, 미술에 대한 탐구와 미술 작품의 감상을 강조했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학문 중심 미술교육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며 적극적인 교사의 역할과 수업을 미술교육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아이스너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발된 연속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미술 교육과정의 조직에 이용되는 영역으로 미술제작, 미술 비평,미술사를 꼽으며, 교육과정에 있어 단원과 학습 활동 개발의 기초로 삼고 있다.

아이스너는 DBAE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문기초 미술교육이란 아동들에게 조작할 수 있는 미술재료를 단순하게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 을 도와주고 촉진하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각 미술에는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학습을 하게 한다는 가치가 담겨 있으며, 교사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정신적 삶을 누리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요약하자면, 학문기초 미술교육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동이 안에서 밖으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도 발달한다고 가정한다.”[20]

아이스너가 DBAE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미술의 이해와 실제에 있어서 풍부한 미술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

20) E. W .Eisner,“ The Role of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America's Schools(Los Angeles: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1987).p.15.

그런 교사는 미적 대상의 미적 특징에 감수성 있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조형의 본질과 원리를 바탕으로 미술의 구조를 생각하고,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21]

DBAE는 미술을 크게 미술제작, 미술비평, 미술사, 미학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아이스너는 이들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문기초 미술교육은 네 가지의 주요한 목표를 가진다. 이들 목표는 시각미술에서 필요로 하는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미술작품을 창조하는 것, 미술작품의 질을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미술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 미술작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단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 등이다.[22]

이러한 DBAE의 미술교육적 측면은 아이스너의 방법론과 비슷하다.

(표 3) 아이스너의 DBAE구조의 지식구조

『

미술제작 『 미술제작

미술비평 미술 미술사 미술비평 미술 미술사

』

미학 』

미술제작은 미술교육에서 창작과정이다. 하나의 재료를 하나의 매개수단, 즉 아동이 전달하고자하는 이념, 인상, 느낌을 담은 그릇으로 변형

21) 전성수, “DBAE가 한국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 연구,” (미술교육논집 제 6집 1996).p.56.
22) "ibid., p.207."

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중요한 인지적 기술이 사용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인지적 기술들이 개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이스너는 다음과 같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시각미술 작품을 만드는 활동은 창작의 가쁨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는 매우 복잡한 인지적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23]

미술비평은 학생에게 시각 세계를 독특한 방법으로 바라보고 기술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장 보편적인 지각형식은 도구적인 성격을 띤다. 우리는 대개 미술 작품을 시각적으로 탐구하기 보다는 그저 인식하는 선에서 만족한다. 어떤 의미에서 미술 비평은 우리의 지각습관을 확장시키고, 더욱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이스너는 미술 비평을 통하여 시각적 형식으로 표현된 특징들, 즉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특질들을 경험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기술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미술사는 미술이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데 있다. 미술은 문화의 일부이며, 미술가들이 만든 것을 때로는 거부하기도하고, 때로는 보상함으로써 미술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미술적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미술의 내용과 형식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대, 지역, 문화는 미술형식들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받기도 한다. 문화가 미술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듯이, 미술의 형식도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이 만드는 미술작품의 형태는 거꾸로 미술작품의 형태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미술사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로 하

23) "ibid., p.208."

여금 미술과 문화형성의 상호작용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있다.

미학은 시각적인 주변세계의 특질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의 질에 대하여 아동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미술의 본질, 시각미술이 지식을 제공하는가와 미술의 질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준거가 있는가와 같은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전문적인 미학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미술이 삶에 차지하는 의미에 관한 끊임없는 대화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고무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C. 평가 방법

아이스너는 평가를 미술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창의적인 표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 평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학문 기초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은 평가받지 않는 교육실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평가는 교육과정,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교육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매개체 혹은 자원으로 간주되어야한다[24]고 주장하였다.

아이스너는“평가는 교육적으로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정의 하였다. 아이스너‘어떠한 현상’을 교육과정에서 개발한 CIPP 모형에서 교육적인 네 가지 측면, 배경(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그리고 결과(Product)의 머리글자 CIPP로 나타냈다. 배경(Context) 영역에서 평가는 아동의

24) E. W .Eisner,“ The Role of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America's Schools(Los Angeles: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1987).p.17.

특성, 지역사회, 교육시설의 물질적, 인적 자원등과 같은 배경의 측면에 관한 평가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설계는 그 프로그램이 작용하는 배경에 대한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측면의 평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교육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미술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평가와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육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투입(Input) 평가는 특정한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학습 활동에 관한 평가를 다룬다. 여러 상황의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이 상황의 본질에 맞게 실현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투입의 평가는 교육과정의'실행과정(Route)'이 포함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가정하며, 이것들의 각각은 실현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은 이러한 '실행과정'과 교육과정의 목표 사이에 상호 도구적 관계를 판단하는 위치이다.

과정(Process)은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가리킨다. 아이스너는 이 과정을'형식적 평가'라고 부른다. 단순한 결과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판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 평가는 학기 혹은 학년이 진행되는 동안 틈틈이 학생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 과정 평가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반응을 얻어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둔다.

결과(Product)는 하나의 교육 단위의 결과에 관한 평가이다. 수업 목표를 간진 교육과정은 최종적인 결과가 수업의 목표인 셈이다. 즉 교육과정은 과정이 의도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결과 평가는 그런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방식이다.

아이스너는 CIPP모형을 구성하는 범주는 평가 연구의 대상을 넓은 범위의 교육적 현상과 관련짓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시된 모형에서 평가의 임무교사나 교육과정 설계자가 교육과정을 개선 할 수 있는 정

보를 얻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평가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설계되고 전문적인 지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도구라고 보았다. [25]그는 시험을 단지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간주하였다 .

결과적으로 아이스너는 시험을 시행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평가 목적을 위한 자료는 단지 시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 교사의 관찰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도 얻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찰은 교수 과정 중에 판단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찰이 제공하는 자료와 그것들에 관한 교사의 판단은 교실에서 교사의 행동을 이끌게 된다. 평가를 위한 수집 자료는 학생들이 미술에 대하여 흥미를 찾아내는 일이다. 신중한 관찰 방법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증거를 찾는 것이다. 비록 그런 방법이 확실한 것이 아닐지라도 확실한 방법이란 없으며, 다양하게 개발되고 사려 깊게 해석된다면 그런 방법들은 고도의 교육적 타당성을 갖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25) “ibid., pp.201-204.”

Ⅲ. 한국의 미술교육의 현황과 아이스너의 영향

A. 한국 미술교육 과정의 전개

1. 요목기

해방부터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교육과정시간배상 기준령'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시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로, 1945년 8월 15일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어 교육에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둘째로, 자주독립국가로서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교재가 없었으므로 교육내용의 설정과 교과서 편찬이 시급했다. 그래서 이시기에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는 한편 교과서를 편찬하였고, 당시의 시기를 교수요목기 교육과정이라고 했다.

교수요목기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교과의 지도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려 했다.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애국애족의 교육을 강화하여 일제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는데 노력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은 이를 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열거한 데 불과하였고 특히 미술교육 또한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비하여 너무 높다는 평이 있었다. 이러한 요목시대 이후 제7차 교육 개정까지 과정 이르는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의 전개된 변천을 살펴보려한다.

2. 제 1차 교육과정(1955-1963)

1954년 4월 20일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이후 1963년 2월 15일 개정된 “교육과정령”이 공포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포된 내용을 살펴보면,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이라는 최초의 법령형태의 교육과정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1963년 2월 15일에 문교부령 제119호로 개정된‘교육 과정령’에서 생활교육이 강조될 때까지 지적인 체계를 극히 존중하는 교육과정 형태가 계속 유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교과중심 교육 과정 시기라 할 수 있다.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서의 교육과정의 정의“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를 말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 교육과정이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교과서이고 미술 교과도 마찬가지였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많은 영역에 생활중심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이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당시 미술 교육은 제4차 교육사절단(1956.10-1962.6)인 미국 조지 피바디 사범대학 사절단이 문교부에 상주 하면서 전국 사범대학 미술 교사들에게 창조주의 미술교육을 학생들 중심의 이론 .목표, 내용, 방법을 제시하고 전달하면서 미술교육의 활기를 불어 넣었다. 창조주의 미술교육이론과 새로운 학생중심의 미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교과단원을 저학년의 놀이를 통한 조형성을 기르고 점차 단계를 높이는 내용으로 교과단원 구성 했다. 당시 미술교육 상황은 서구미술교육을 처음 도입한 시기로써 미술 접목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며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은 6.25전쟁 직후에 제정되어, 혼란한 사회 상태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내용 설정을 못하였고,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한국 고유의 목표도 설정하지 못했다. 단편적인 지식주입에 편중한 나머지 인격의 도야에 소홀하였고 학습활동도 표방하는 경험주의와는 멀게 실생활과의 괴리가 심했다.

3. 제 2차 교육과정(1963-1973)

1963년 2월 5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생활교육을 강조할때부터 1973년 3월4일 개정될 때까지 경험중심 교육과정 또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된 시기다. 해방이 되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진보주의)의 개념이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교육계에서 주목을 끌면서, 특히 6.25사변은 경험중심 교육의 필요를 절감케 하였으며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시범적 연구가 고조되었다.

1963년2월 15일에 문교부령 제211호로 개정, 공포된 교육과정 총론에는“교유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중심 교육과정 또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정의이다. 교육개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자주적인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한국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선정하여 우리국가, 민족의 무궁한 민주적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학생으로 하여금 만들고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적당한 방법을 습득시켜 우리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기능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

하였고 그러한 교육 정책으로 인해 미술교육도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생활 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미술 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학생생활에 중심으로 생활경험과 창의적인 표현을 통하여 미술을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실천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26]그리고 미술 교육과정은 학생의 성장 발달과정에 적응될 수 있는 계통성, 발전성을 보장해 주는 역동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 효율의 배가를 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미술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적용을 지역 사회의 설정에 맞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적어도 개념적인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지배하였다. [27]그러면서 교육실제면에서는 여전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유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며, 미술교과의 입장에서 내용을 체계화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초.중. 고 별 학습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었다.

4.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

1973년 2월14일 초등학교와 8월 31일 중학교를 시발로 1974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에서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인데, 1972년 10월 유신 등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기 이다.

국가 사회적 배경에서 국제사회의 제반 변화에 대처하는 국력배양을 위한 교육요구 되었고,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의 선포에 따르는 교육과정 개정의 요청 되었다.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개념과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내용을 엄선하였다. 즉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다.

---

26) 이규선外,“미술교육학” (교육 과학사. 2000).pp.141-142.
27) 교육부,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4).p.9.

개정된 3차 교육 과정은 미술교육 과정을 더욱더 구체화되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 가게 되었다. 이런 교육과정의 편제에서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기본 능력의 배양, 기본 개념의 파악, 미적 정서의 함양, 조형감각, 기초적인 미술기법 습득과 재료, 용구 사용 등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학년별로 내용 제시하여 달성하려 하였다.[28]하지만, 학습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내용, 교과목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교육, 일반 교육의 소홀, 전인교육, 인간교육의 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특히 지적학습으로 인하여 정의적인 영역학습이 소홀하였다.

5. 제 4차 교육과정(1981-1987)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된 때부터 1987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제4차 개정은 1970년대 후반의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초교육 ,일반교육강화, 전인교육, 인간교육 강화라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방향 구체화는 이러하였다.

건강한 신체, 풍부한 정서, 고상한 취미, 강인한 의지, 심미적인 태도 기본학습 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기초지식과 기술, 문제해결력, 진로개척의 능력, 주체적인 자아의식, 정직성과 성실성, 자율성과 책임감, 공정성과 질서의식, 인간존중 태도 등 그 내용이다. 그래서 교육의 인간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술교육의 특징 또한 전인적인 인간중심의 교육과 개성과 창의성을 더욱더 강조하였으며,<미술을 위한 교육> 보다는〈교육을 위한 미술〉에 관점을 들고 교과 과정을 정립한 시기이다. 상실되었던 인간 본성 회복과 지식편중 중심의 교육으로 잃어가는 미술교육의 본연목

28) 이규선外,“미술교육학” (교육 과학사. 2000).p.148.

적을 살리고자 하였다. 미술 교육과정의 개정 기본 방향은 미술교육의 통한 국민교육을 강조, 학생의 자율적 상상력 통한 창의성 발달 강조, 미적정서 함양 강조, 미술교육을 통한 특성에 맞는 내용을 체계화하여 교육 효율성을 강조, 미술의 여러 가지 요소를 폭 넓게 경험하도록 포괄성을 강조하였다.[29]

6. 제 5차 교육과정(1987-1992)

인간중심의 이념 교육을 기본으로 5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인간 존중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목적에 입각해서 지. 정. 의 가 융합한 감성 인간 육성을 강조하였다 4차 교육 과정이념의 연속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미술교육 역시 4차 교육과정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개정으로 그 일부만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한 한개 정의 결과가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진적 변화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이 의도대로 학교교육이 교육령을 발휘하여 종국적으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제5차 교육과정에서 고려한 상황을 보면, 교육과정결정의 중앙 집중성, 교육과정의 획일성, 교육과정내용의 부적합성, 교육과목 목표달성의 비효율성, 교육과정편성의 경직성, 교육과정운영의 파행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미술의 여러 장르에 따라 지도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이 조형활동에 중점을 두어 표현과 감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급격히 발달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어 미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환이었다. 미술교육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미술교육학 입장의 교육과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

29) 교육부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주 교학사. 2004. p.10.

7. 제 6차 교육과정(1992-1997)

6차 교육과정개정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되었다.[30] 6차 교육과정에서 미술교육은 5차 교육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술교육에서 획일화, 폐쇄화, 구조화 된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고 했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체계화된 시각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기르기 위한 예술의 특성과 창조성, 감수성 등을 신장시키기 위해 고려한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미술교육은 전인적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써 일반교육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어 예술적 측면을 조화시키는 교과라고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개발하여 정서를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술을 생활 속에 느끼고 애호 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재료와 용구의 효과적인 사용, 미술대한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였다. 미술 교육과정은 첫째 창의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육을 강조 하고, 둘째 미술의 이해와 환경대한 관심과 개선의지를 갖도록 하며, 셋째 구체화 체계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 넷째 미적 감성을 개발하고 미적가치관을 정립하기위한 감상 지도 강화, 다섯째, 우리나라 미술전통성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아울러 지역 사회의 미술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8. 제 7차 교육과정(1997-2007)

제7차 교육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

30) 교육부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2004).p.13 .

적인 한국인 육성 및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등 내외적으로 체계 및 환경, 소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적성을 존중 하며, 독창적인 지적가치를 생산할 창의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기위해서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미술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 고려하였다. 첫째로 미술교육과 각 학교 차이에 따른 연계성과 위계성 그리고 통합성을 고려하였고, 둘째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내용과 학습량 그리고 수준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의 필요성과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31]

제7차 교육의 기본 방향은 제6차 교육과정의개선, 보완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의 체제를 세우고, 미술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리면서 창의적인 바탕위에 개성을 지향하며,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민주 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미술교육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미술교육은 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7차 교육과정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며 국민의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하나의 미술 교육과정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미술교육의 학습내용에서 필수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관심, 흥미, 적성을 고려해서 미술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감상

31) 이경정,“ 제7차 교육과정의 반영된 DBAE 연구”(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p.5, 재인용.

교육 강화,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교수. 학습방법의 다양성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미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들 상호간에 학습목표에 대해 비추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한다.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생각을 시각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 창조하므로 써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통해 미술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 교육은 다양한 주변 세계의 아르다움을 느끼고 향유 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 비판력을 사고를 길러 미술 문화의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미술교육은 지향 목적과 세부 목표들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핵심부분이다.[32]

a. 미술교육의 목표

제7차 교육과정 에서의 목표는 미술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를 제시하고 진술하고 있다. 미술활동을 통해 감상능력과 표현, 창의성을 개발하고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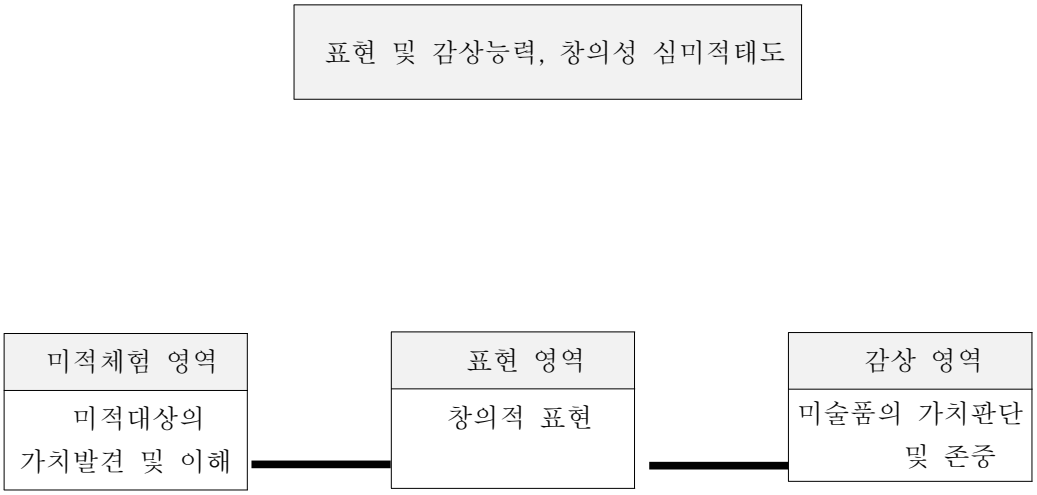
미술교육은 미술적 경험과 활동 속에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조적 표현능력과 비판적 능력이 길러진다. 독창적인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도와주면, 미적체험과 감상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미술의 경험과 체험으로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인식이 미술의 총괄적인 목표라고 설명 될 수 있다. 미술교육의 총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써, 내용영역과 연결고리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적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 그리고 느

32) “ibid,.pp,146-147.”

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미술적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 유산을 존중 할 수 있다.

미술교육의 총괄목표와 하위 목표의 체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 표 4 미술과 목표 체계 표 〉



자료: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b. 학교 급별 수준과 범위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육 형태로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차를 무시한 획일적인 강의식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이

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기존의 일체식 수업과 개별화 학습의 중간적 형태라 말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 단계의 진급 자격기준의 설정은 학생들을 걸러내어 재이수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까지는 누구나 미술교육을 하도록 하고, 의미 있는 수업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수준별 미술수업은 동질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미술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미술교육 또한 학생 개인의 흥미의 유발 있고, 수준별 미술수업 시 교사는 편성된 반에 맞는 자료를 찾고 또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미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33]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방안을 교육과정의 중핵(中核)으로 삼아 2004년부터 점차 수준별 미술수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수준별 수업이란, 학생들을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수업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대로, 열등한 학생은 열등한대로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 매우 선진적인 수업 방식이다. 특히 요즘의 수준별 미술수업은 수월성 교육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각계에서 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수준별 수업란 평준화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통 학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준별 미술수업은 크게 보면 수월성 교육과도 일정 부분 그 맥이 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수준별 수업은 위에서 열거한 장점 외에도 단점 또한 많은

33) 신경원,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교실 학업 성취도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9-10, 재인용.

것이 사실이다. 우선 첫째로, 수준별 미술 수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교사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되고 수준별 미술 수업에 맞는 교재 개발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과 교실 등의 시설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가 상의 문제이다.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려면 우선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준별 평가가 쉽지 않다. 각자 차별화된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일제식 미술 평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과연 투자한 만큼의 미술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투자한 만큼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34]

2006년 10월14일이처럼 수준별 미술수업이 여러 부정적 위험 요소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수요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특화된 능력이나 창의성이 강한 신지식이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즉 다원형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수준별 미술수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34) 김동수, “한국 수준별 교육” (한겨레,2006), 5:4-8

표5) 7차 교육 과정의 미술과 내용 체계표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7.8.9학년	10
미적 체험	1)자연미발견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이해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자연미와 조형물의 미적가치 이해
	2)조형미 발견	자연과 조형물의 관계이해	미술과 생활 관계	미술과문화의 관계이해
표현	1)주제표현	주제표현	주제표현	주제표현
	2)표현방법	표현방법	표현방법	표현방법
	3)조형요소와 원리표현	조형요소원리표현	조형요소원리표현	조형요소와 원리표현 창의적 표현
	4)표현재료와 용구	표현재료와 용구	표현재료와 용구	표현재료와 용구
감상	서로 작품 감상	서로 작품 감상	미술품감상	미술품감상 이해하고 판단하기
	미술품감상	미술품감상	미술문화유산이해	미술문화유산특성과 배경이해

9. 7차 교육과정 개정안 (2007-현재)

2007년 2월 28일, 교육 인적 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부)는 현행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안(이하 8차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온 제 7차 교육과정의'수시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미술과는 2009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등의 내용으로 하며, 미술과 교육 내용으로 개정안 대해 알아 보려 한다. 8차 교육과정의 확정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성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수정 · 보완된 것이므로 대부분이 7차 교육과정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교과목 미술은 미술과 삶, 미술과 감상, 미술의 창작"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는 오는 2012년부터 고교 2,3학년의 필수 과목군의 기술, 가정과 음악, 미술로 포함시키기로 했다[35]

이러면서 중학교 1 학년은 주당2시간 3학년 주당 2시간으로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수업 운영 비효율성개선, 집중이수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수업평가 실시하려 한다.[36] 미술교육의 방향은"기초교육", "활용교육", "가치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구현하려 한다. 조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형 사고능력을 배양을 위한 활용 교육은 중등과정에 시각문화 환경이 주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설하고 바르게 알아내는 가치교육은 고등학교에 중점으로 운영하되, 모든 과정에서 동시 이루어진다. 또,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학교 모든 학년에 주당2시간을 확보하거나 주5일제 따라 전체 수업을 축소하게 될 경우 중학교 3개 학년의 수업시수를1-1-2 에서 2-1-1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초등학교1 학년부터 미술교과의 내용체계가 마련되거나 즐거운 생활 교육 과정에서 세 활동으로 분리되기 어렵다면 즐거운 생활교과서로 분책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

35) 안선희," 신문 사설 칼럼-교과목 미술은 미술과 삶, 미술과 감상, 미술의 창작" (한겨레 2007). 1: 17
36) 이화식,"미술이론-7차교육 개정 과정" (교육과 미래. 2007).p.386.

온 상태 이다.

B.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의 현황

우리나라는 근현대 미술교육은 일본과 미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중등 미술 교육은 낡은 패러다임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왔다. 이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1차부터 제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의 왜곡된 이해로 많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교육인적 자원부가'예체능 교육평가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문화예술계에서는 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학교 안팎에서 들어오고 학교 교육에서 미술교과 개설 이래 최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위주의 경쟁교육이 중심이 된 현 공교육에서 학생들은 제대로 된 미술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인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입시교과 중심의 교육풍토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제6차 교육과정 시행이 중학교 미술과의 수업시수가 대폭 줄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는 중학교 경우 주당 평균 1시간정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1학년 때 1시간정도 되지만, 실제로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인 지도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술교육에 현실이다.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문서로써 형태가 공식화 되어버렸다. 중학교의1.2 학년에서 주당1시간,3학년에서는 2시간 정도를 지도

하게 되어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기본 공통과정의 경우는 2단위로써, 1학년 때 1.2학기에 각각1시간정도 지도하거나 1학기에 2시간씩 지도해서 끝내버리게 되어 있고, 선택 과정에서는 음악 등의 다른 과목들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지도하지 않고 있다.[37]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시간 운영상 중등학교에서 미술교과는 왜곡, 무시되면서 중등학교에서 치르는"시험지"에는 초등학교 문제 수준의 내용이 출제되고 그것으로 미술교과 과정이 끝나버린다. 요컨대 형식적 교육과정, 형식적인 시간표, 형식적 시험 등 형식적인 것만을 하는 것이 중등 미술교육의 실상이다. 미술교육이 무시되는 이유를 보면 우리교육의 현실이 대학 진학과 맞물려서 대부분의 교과가 수험서가 되고 미술교육 경우에도 대충 내신 성적을 위해하며 된다는 식이며 이런 원인은 광범위하게 미술교육 대한 사회의 인식이 잘못 때문이다. 미술의 교육의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미술을 장식의 기술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미술시간이 줄어들고 미술교사의 설자리가 사라져 가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우리 미술교육 전문가의 책임이다 문제가 이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며 개인 편의 주의적 발상이나 관행에 빠져 있었던 것을 반성해야 하며 문제를 파헤치고 대책 세워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38]

C. 한국 미술 교육에 미친 아이스너의 영향

교육은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고, 미술교육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도 비슷한 사회 변화를 거쳐 왔다.우리의 미술교육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교수요목기 등 거치면서 자체

37) 이건주, "7차선택 중심교육과정의 실상 비판" (학교이야기. 2008).p.2.
38) 김춘일, "앞의 책" (교육월보, 1997). p.402.

적인 미술교육상상이 확립되지 못했다. 일본의 미술교육과 미국 등 미술교육사조의 도입과 접목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미술교육은 창의적중심의 학자인 로웬펠드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받아 1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용 된다.

학생의 발달과 창의성 개발의 중점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해 이점들도 있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다. 제3차 교육부터 보완책으로 학문중심의 학자인 아이스너의 교육사상을 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밑바탕은 창의적중심의 교육 이었다. 1960년대 미술교육학자들은 창의성의 개념에 의문을 가지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교과의 기초한 미술교육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제6차 교육과정부터 학문중심의 미술교육 사상가인 아이스너의 미술 교육사상이 이러한 개념으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학문중심으로 한 미술교육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학문중심 미술교육 학자인 아이스너의 교육사상과 교육방법론을 통해 연구자는 미술교육에 있어 한국미술교육에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1. 아이스너의 미술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술 교육

아이스너의 미술사상은 학문 중심으로 이 사상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제6차 교육과정이다. 미술교육의 목표를 조형활동의 경험을 통해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개발하여 정서함양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DBEA 와 다양한 문화교육을 강조하여 수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차교육과정에서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내용체계를 DBEA 기본으로 하는 미술사, 미학 등의 영역별 내용면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DBEA의 바탕으로 영역의 모델 제시한 학자 아이스너는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밑바탕에 제7차 교육 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스너는 창조주의 미술교육사상의 미술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자아표현에 대한 한 결 같이 집중되었던 것에 벗어나, 미술교육인간의 경험과 문화의 독특한 면을 갖추는 독립된 교육으로 인식하고 강조했다.

독립된 교과임을 주장하면서, 교과중심의 수업방법에 관한 내용을 통합이 아닌 미술자체의 통합된 미술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감상을 통해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도록 지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술교육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며, 표현 통해서 학생들의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는데 목적이 있고, 감상의 활용을 통해 미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감상한 것을 통해 구체화시켜 표현을 직접 해 봄으로써 감상을 통해 이해한 것을 심화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39] 이러한 미술교육 중심으로 교육의 접근은 인간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미술의 본질적 가치를 다룰 때 미술의 비평과 미술의 이해, 미술의 감상을 강조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이스너는 교사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창의적 중심의 교육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중시하였으며, 학생들의 표현활동에 교사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경계 하였다. 교사개입을 창의적인 표현 줄어들게 되고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의 지도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놓아둔다면 그것은 무책임 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스너는 미술표현을 보완하여 미술의 이해 및 미술 감상 교육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술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이해시키고 작품의 결과물을 통해 미술에 대한 학문 교육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면이 DBEA에 반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아이스너가 제안한 DBEA에서의 기본을 이루는 미술사, 미학, 미술비평 등의 영역과 내용면에서 제7교육 과정에서의“미적 체

39) 전성수, “DBEA가 한국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연구” (미술교육논집. 1996). p.36.

험, “표현, “감상”내용체계는 그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이스너는 DBEA를 통해 미술교육이 독자성을 강조하였고, 미술의 이해와 감상,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이 우리나라 제6차,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술교육의 감상학습 측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아이스너 교육사상을 통한 중등 수업

a. 중등 감상수업

아이스너는 작품에 대한 감상 단원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미술품과 우리나라의 미술품을 비교하고 특징을 관찰하게 된다. 작품에 대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고 보았다. 비평수업이나 추상적인 수업을 지향하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이스너의 감상학습에서 교사는 설명만 한다면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 대한 지루함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듣기활동 외에 학습이 없게 된다.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이 듣는 것은 모두 사고방법에 의해 학습해 나간다. 학문을 빨리 이해시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의하는 경험이 없으므로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학습 태도를 기를 뿐이다.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게 해주는 방법이 된다. 감상관점을 제시하고 감상의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하여 의견을 나눌 때 감상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감상수업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인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미술교육에서 감상수업은 이러한 명시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정 외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감상교육의 잠재적인 수업이다. 아이스너는 미술교

육에서 학습은 명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상호 면밀한 관계 속에서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b. 미술교과서 활용

미술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체화된 모델로써 교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행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며 학습운영의 지침이 된다. 미술교과서를 살펴보면 민족고유의 전통적 미술문화 가치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용이 전통미술에 관한 참고 자료들이 예시되어야 할것이다. 지도과정에서 가능한 전통문화와 관련시켜 지도하도록 하며 민족미술의 우수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0]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국가단위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사상이 교과서의 실제 운영 및 활용의 있어서 각 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실태를 고려하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재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한 것이 바람직하다.

3.아이스너의 미술 교육사상의 문제점과 대안

아이스너의 미술 교육이 독립된 교과로써의 교육으로 대접 받도록 기여를 했고, 한국의 미술의 인식과 이해 및 감상을 강조하는 연구에 큰 몫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스너의 교육사상은 학문 중심 미술교육이므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살펴보려 한다.

첫째,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은 학문중심 미술교육과 미술에 대한 지식의 전달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술 수업이 암기나 지식전달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한 시각매체, 표현과의 통합적 지도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되어있지 않는다면, 지루한 수업이 될

40) 교육부, “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 자원부. 2004). p.26.

우려가 있다. 둘째,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지도방법의 제시가 미흡하고 미술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미술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아이스너의 미술 교육 방법론을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수업을 강조하면서도 학급과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의 여지 있다. 그래서 미술 제작과 함께,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을 학교현장에서 가르쳐져야 하면, 이런 통합적인내용을 추출하여 학년별 수준에 따라 지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로인해, 미술 교육이 체계적이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킬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지도방법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수업을 강조하면서도 각 급 학교에 따라서,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미술제작과 비평, 미술사, 미학이 미술교육에서 가르쳐져야 하며, 미술교육의 체계적인 내용을 추출하고 통합하여 학년별 수준에 맞는 미술 교육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되어할 것이다. 셋째, 교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담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미적인 감수성과 미술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평능력, 능숙한 미술제작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점으로 인해 교사는 장기간에 거쳐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미술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 하며 미술표현을 소홀해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미술은 결국 실기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의 이해와 표현 ,감상의 세 영역이 통합적이고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미술을 지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으로 볼 때 미술제작, 미술비평, 미술사, 미학 등의 기초 학문은 표현이 무조건으로 만드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미술을 이해시킨다는 측면에서 표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표현의 기능을 기르고 작품 제작 활동 하는 것도 미술을 이해하고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에 영향을 미친 아이스너의 미술 교육사상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Ⅳ. 결 론

미술 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변화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도 제1차 교육 과정부터 제7차 개정교육과정까지 온 미술교육과정에 대해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무엇인가에 대해 변화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제1차, 2차 교육과정은 창조적 중심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후 창의성의 가치인식의 부족과 실질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미술을 하나의 기술로 여기는 편견 등으로 인해 실기 중심으로 그 흐름이 이어졌고, 미술표현 위주로 교육이 강조되고 교사의 미술교육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한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로인해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차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제6차, 제7차 교육 개정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학문 중심의 미술교육 사상이 학교 현장에서 반영되었다. 학문중심의 교육학자인 아이스너의 사상을 기본적인 모델로 간단히 요약하면 미술의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인정하고, 학문으로써의 미술교육을 제시하고 미술 수업을 작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시하지만, 최종작업을 학생들이 추론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중요시 여겼다. 아이스너는 미술교육에서 미술 이해 및 감상교육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미술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아이스너의 미술사상 및 방법론은 제6차 ,7차 교육 개정과정까지 영향을 주었고, 표현중심의 실기위주였던 미술교육에 미술의 기초이해 및 감상을 통한 비평 그리고 미술 감상교육과 미술 이해지도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활기를 불어주고 미술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미술교육이 학문중심 미술교육과 같이 지식전달 중점을 둔 미술수업이 암기식 수업 및 단순 지식전달 수업의 형태가 되어 학생들에게 지루한 수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구체적인 교육 방법 미흡하다. 셋째,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미술의 대한 이해를 강조함으로 미술표현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과 분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질이 높은 미술교육으로 평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국적인 미술교육 방법을 찾아내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맞는 미술 교육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성모, “미술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미술 학습 프로그램 개발”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대 대학교 교육대학원,2000.

곽진숙, 아이스너의 교육평가론,(교육원리연구), 2000:153-194.

김정희 外,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2003.3

김정희, “아이스너의 Educating Artistic Vision” 학문출판 2001.09.15

김재건, “아이스너의 교육과정유형분류에 관한 재 고찰” 교육연구 16집: 1998 1-13.

김춘일, 중등 미술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4.

교육부 고등학교 교과과정 해설,10 (교육부 고시1997-15호) 서울 :교육부, 2000.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 “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 자원부. p21. 2004.

박동수, “현대미술 교육의 경향 과 제반 문제” 미술교육연구 논총1998.3-16

박은덕, “미술과 목표 및 내용 체계 방향” 미술교육 논총 13. 2000.

배준선, “ 아이스너의 미술교육 방법론이 한국 미술교육에 미친 영향“석사 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희, 기자 신문 사설 칼럼 2007 1. 18 한겨레

이규선外, “미술 교육학” 교육 과학사 2000. 02 .05

이우진, 로웬펠드와 아이스너의 미술교육사상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E. W. 아이스너,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 교육. 서울 : 도서출판 1998.

E. W .Eisner, “ The Role of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America's Schools(Los Angeles: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1987.

최윤재, 미술교육 방법론 고찰, 미술교육논집, 1992.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교육	학 번	2006808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박승선 한문: 朴 勝 善 영문:park seung sun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현대2차 12동 805호				
연락처	010-6644-5433 E-MAIL: artasonepark@naver.com				
논문제목	한글 :아이스너의 교육관이 중등 미술교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Influence of the Eisner's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on the Secondary Art Education Curriculum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12 월27 일

저작자: 박승선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